52. 여객 운수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악성 림프종

성별 남 **나이** 65세 **직종** 자동차에 의한 **업무관련성** 낮음 여객운수업

- 1. 개요: 근로자 망 백OO은 1978년도 1985년도까지 7년간 정비공으로 근무하였고, 1986-1994년도까지 8년간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, 1995-2006.7.25 퇴직시까지 11년 간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, 2006년 8월 악성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.
- 2. 작업내용 및 환경: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회사가 폐업처리 되면서 기존 인사 관련 서류들이 분실됨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업무는 알 수가 없다. 하지만, 동종 사업장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볼 때, 월 1-2회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추정한다. 다만 지금까지의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여 노출 농도를 추정하였을 때, 근로자가 7년간의 도장작업을 통해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제시하는 인정기준인 10 ppm-year 또는 과거의 노출기준을 모를 때 사용하는 현재 노출량 기준 1 ppm-year를 초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.
- 3. 의학적 소견: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, 망 백OO은 평소 건강상 이상이 없이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를 하였는데 관리과장 및 관리 부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정비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 이외 정비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다. 회사의 분리 문제와 노동조합에서 본인 및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퇴하라는 압력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2006년 7월에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. 그 직후부터 고열과 오한, 식욕부진 등에 시달리다 8월에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고, 8월 27일부터는 통원하며 항암치료를 받았다. 2006년 9월 사망하였다.
- 4. 결론: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망 백OO은 악성 림프종으로 확진되었으며,
- ① 버스정비업 사업장에 28년간 근무하면서 7년간 정비 및 세척 작업을 하였고 21년간 과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,
- ②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과거 백OO의 벤젠 누적 노출수준을 파악하기 어렵지만
- ③ 현재까지 보고된 우리나라 벤젠 노출 관련 문헌을 검토해 볼 때 백OO의 과거 정비 작업 기간 동안의 벤젠 노출량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제시하는 인정기준인 10 ppm-year 또는 과거의 노출기준을 모를 때 사용하는 현재 노출량 기준 1 ppm-year 를 초과할 가능성이 낮으므로,

근로자 (망)백OO의 악성림프종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